

산느타리버섯 육성품종 “호산” 품종보호권 실시

□ 연구 핵심은

- 강원 육성 ‘호산’ 품종은 맛과 향이 뛰어나고 소비자 기호도가 높아 일반 느타리버섯에 비해 높은 가격에 팔리고 있음
- 종균의 안정적 보급을 통한 농가재배 확대로 지역특산 소득작목화 육성

□ 기술이전 내용

- 산느타리버섯 “호산” 품종보호권 실시
 - 대상기관 : 화천 평화기능성버섯농업회사법인
 - 실시기간 : 2013. 2. 15 ~ 2016. 2. 14(3년)
 - 실시규모 : 18만병(년 6만병)/9ha 분



병재배



봉지재배



균상재배

□ 파급효과

- 새로운 소득작목 개발로 재배농가 소득 증대 : 일반느타리버섯 대비 20% 향상
- 일부 버섯품목에 편중된 버섯시장구조의 틈새시장 확보로 농가 소득 안정화

〈세부연구결과 성적〉

- 산느타리버섯 “호산” 품종 육성경위
 - '02년 : 1차 자생종(강원도) 수집
 - '03~'04년 : 수집균주의 생리특성 및 생산력 검정
 - '05~'06년 : 수집균주의 배지개발 및 지역적응시험
 - '07년 : 생산력 검정 및 농가실증시험
 - '08년 : 품종출원

- 산느타리버섯 “호산” 품종 주요 특성
 - 자실체의 갓색은 흑갈색이고, 생육적온은 15~17℃로서 중온성 버섯임
 - 850ml PP병으로 재배할 경우 균사배양기간은 28일이고, 초발이소요일수는 4일이며, 평균수량은 115g임
 - 일반 느타리에 비해 조단백 33%, 인 250%, 칼륨 18%, 마그네슘함량 24% 증가
 - 재배방법 다양 : 병(850ml), 봉지(1kg), 균상재배, 원목재배(20cm) 모두 가능

- 품종보호권 실시내역
 - 대상기관 : 화천 평화기능성버섯농업회사법인
 - 실시기간 : 2013. 2. 15 ~ 2016. 2. 14(3년간)
 - 실시기간 및 수량
 - 1년차(2013.02.15~2014.02.14) : 60,000병
 - 2년차(2014.02.15~2015.02.14) : 60,000병
 - 3년차(2015.02.15~2016.02.14) : 60,000병
 - 실시범위
 - 지리적 범위 : 대한민국
 - 실시내용 : 종균의 생산·판매(종균의 증식, 생산, 조제, 양도, 대여, 전시)